

#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광한루원 '들썩'

31일 첫 선...공연단 구슬땀  
서울 여행박람회 참가 등  
남원 관광문화알리기 만전



남원의 대표적인 거리공연인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오는 31일 관광단지과 광한루원에서 공연을 시작한다. 남원 시민으로 구성된 공연단의 공연 모습. (남원시 제공)

조선시대 신관 사또의 부임 행차가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에서 재연된다.

남원시는 남원의 대표적인 거리공연인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오는 31일 관광단지과 광한루원을 시작으로 올해 화려한 나들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연단은 지난달부터 매일 밤 만나 올해 공연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공연단은 4월6일 서울에서 열리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남원 관광문화를 홍보하고, 이튿날 서울광화문 '남원의 봄' 홍보행사에서도 수도권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봄 상설공연은 4월30일 시작된다.

이날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관광단지에서 광한루원까지 관객들을 웃고 울리는 공연을 펼친다.

2007년 첫 선을 보인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우리나라 대표 고전물인 춘향전을 표현한 공연으로 각색한 남원의 대표 거리공연이다. 봄·가을 상설공연을 중심으로 관광단지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펼치며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을 보태왔다.

11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문화관

광프로그래프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연단은 남원시민 75명으로 구성됐다. 공연단원 중에는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이모와 조카, 삼촌과 조카 등 가족단위 단

원들이 많다. 이 때문에 연대감과 결속력이 높다.

남원시 관계자는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남원 대표공연물로 성장한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올해도 관광객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한지로 만든 전주 지도, 초등 교과서에 실려 한지장 4인 생산 2500여장 지도 3학년 1학기 교재 수록 배포

전주 한지장 4인이 직접 생산한 2500여장의 전통한지가 올해도 초등학교 지역 사회교과서에 공급됐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김천중·강갑석·김인수·최성일 등 전주 한지장 4인이 직접 생산한 전통한지로 제작한 전주 지도(사진)를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우리 고장 전주'에 수록, 배포했다.

이번 전통한지 공급은 전주 전통한지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가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한지 고지도 제작, 한문화 소개 편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전당은 이 고지도 제작을 위해 지역 한

지 장인과 함께 3개월 동안 전통방식 외 발 뜨기로 전주 한지를 제작했다. 또 여러 번의 제작과 인쇄 등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과서에 수록 가능한 수준의 고지도 품질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 고지도는 사진과 비견되는 한 쪽의 기록화로 소장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전주의 옛 모습을 잘 표현해 학생들에게 전주의 옛 모습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당은 또 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유발과 참여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전주 한지 이야기 프로그램, 전주 지도 액자 기증 행사, 한지 부채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시, 외식업소 맞춤형 경영개선 컨설팅

정읍시는 소규모 외식업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현장중심 맞춤형 경영개선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2019-2020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음식 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9개 분야)를 실시한

다.

또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경영 개선에 적합한 5개 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조리·마케팅·인테리어·고객서비스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증을 교부하고 표

지판도 배부한다.

시에서는 홈페이지 홍보와 각종 행사 시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0일까지 정읍시보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외식업소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취약계층 생활안정 상반기 일자리 사업 추진

고창군이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사업은 다문화이해강사, 주정차 질서계도, 도시공원 미관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10명이다.

참여자는 주기적인 사업장 안전교육과 4대보험 교육을 받는다.

또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안내와 소양 교육도 병행된다.

근로자 중 65세 미만은 주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한다.

임금은 올해 최저지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르신과 청년,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 순창군, 지역 상품권 10억원 규모 발행 추진

순창군은 연내에 군내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사진)을 발행할 계획이다.

상품권 규모는 연간 10억원이며, 군내 모든 금융기관(20곳)에서 판매와 환전도 록 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평상시에는 7%, 명절에는 10%다.

가맹점 대상은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문구점 등 소상공인 운영점포다. 상품권 액수의 5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상품권 명칭 공모, 조례 개정,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 모집 등을 마치고 이달 9일부터 상품권을 팔 계획이다.

군은 주민, 상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유출 방지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군정 시책, 장려금, 수당과 연계해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 군산시, 베트남과 국제교류 본격화

최근 봉파우시와 우호도시 의향서 체결

군산시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유망신흥국가인 베트남과 국제교류를 시작했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시청에서 베트남 바리야붕따우성 봉파우(Vung Tau)시와 우호도시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 체결식에는 강인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응우옌 략 봉파우시 인민위원장, 레티팜띠엔 바리야붕따우성 외무국장, 양철수 바리야붕따우성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면담을 통해 각 도시의 대표축

제 및 행사, 예술제에 상호 방문 및 참여, 교환 학생 등 인적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의향서 주요 골자는 경제, 관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교류를 통한 양 도시의 공동 번영과 관련된 우호 협력을 담았다.

한편 군산시는 그동안 5개국 18개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 체결을 통해 국제협력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여수에서 최고 요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평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

